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603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성령 강림 대축일

2 0 2 6
0 5
2 4

주보



입당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회답송 시편 104(103),1ㄱ과 24ㄱㄷ.29ㄴㄷ-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코린토1서 12,3ㄷ-7,12-13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Q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A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 놀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시편 139, 1~10)

심지어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기보다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지옥 같은 상황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지옥 같은 죽음의 십자가도 부활의 꽃이 만발한 구원의 십자나무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시편 23, 4)

권순호 알베르토 신부 / 남산성당 부주임(albkw93@hotmail.com)

기 도 지 향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5월	목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 봉사, 자선
1주	1,285	7	30	7
2주	251	3	2	5
3주	986	2	6	6
4주				
합계	2,522	12	38	18

교황님 5월 지향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식량>

대규모 생산자부터 소규모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식량 낭비를 줄여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보장하고자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위령기도

산타마리아 교우 좌정자 안나(86세, 1940년생)께서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미션순례 (매월)

- 일시 : 5월 28일(목) 09:00
- 장소 : La Purisima Mission State Historic Park (2295 Purisima Rd, Lonpoc, CA)

2. 성모의 밤

- 일시 : 5월 29일(금) 19:30 묵주기도 / 20:00 미사
- 장소 : 성전

성모님께 드리는 글을 적으셔서 성모의 밤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3. 울뜨레아

- 일시 : 6월 6일(토) 10:00
- 장소 : 친교실

4. 본당 야외 미사

- 일시 : 7월 12일(주일) 10:00
- 장소 : San Buenaventura State Beach

5. 꾸르실료 (여성 제 51차)

- 일시 : 26년 7월 16일(목) - 19일(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treat Center (20124 Saticoy St. Winnetka, CA 91306)
- 꾸르실료에 참가하는 분들 주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7.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썰"(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썰(Cell)"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매주 주일 12:00 "썰(Cell)" 기도 모임도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미사 전이나 후에 바로 자석을 부착해 주시면 집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9. 북가주 미션순례

- 일시 : 8월 19일(수) - 22일(토)
- 장소 : 북가주 미션 12곳
- 전대사 : 아씨씨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희년 전대사
- 비용 : 1190불(25명 이상), 1140불(35명 이상)

10.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	5월 31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대축일
제1독서 : 설옥진 카타리나 제2독서 : 김미숙 마리안나	제1독서 : 김상우 아우스딩 제2독서 : 김인선 아녜스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현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5월 3일	\$500	\$370 공소 \$700		\$1,570	25/3	6	31/3
5월 10일	\$700	\$300	\$100	\$1,100	23/1		23/1
5월 17일	\$1,000	\$311 \$170		\$1,481	30	7	37
5월 24일							
합계	\$2,200	1,851	\$100	\$4,151			

교무금 현황 정필원(3-8), 윤정구(5,6), 문기선(5)